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제공

전주시, 지속가능 교통인프라 구축 등 교통 분야 4대 추진전략 제시

전주시는 25일 대중교통본부 신년브리핑을 통해 '시민의 일상을 함께하는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제공'을 비전으로 한 교통 분야 4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4대 추진전략은 △생활 속 교통서비스 제공과 지속가능 교통인프라 구축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혁신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구현 △사업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 △시민중심의 맞춤형 차량행정 서비스 제공 등이다.

먼저 시는 생활 속 교통서비스 제공과 지속가능한 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해 최근 출범한 전주시교통국을 더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및 이벤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올해 노후화된 전주역사를 증축하고 관광 부분의 교통체계를 개선하는 전주시역사 개선사업 추진에도 박차를 가한다.

또한 시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페달보조방식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 사업을 추진하

고, 이용하기 불편한 자전거도로 등도 꾸준히 정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시내버스 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간선급행버스체계(BRT)를 연내 착공할 계획이다. 기린대로 BRT(호남제일문~한백교 10.6km 구간) 사업은 개발계획 고시에 이어 지난해 9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다.

여기에 시는 대한민국 수소 선도도시답게 공기정화 효과가 있는 수소시내버스를 올해 추가로 8대를 추가 도입함으로써 전국에서 가장 많은 총 178대의 수소시내버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시내버스의 경우 오는 2월부터 삼례방면을 시작으로 완주군 주요 소재지까지 운행되고, 완주군 각 마을까지는 완주군 직영 마을버스가 운행되는 등 전주-완주 시내버스 직간선제도 속도를 낸다.

이와 함께 시는 농촌 자연마을 등 교통취약지역을 운행하는 마을버스 '바로문'과 모심택시 등 주민 친화적이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지속 제공한다. /김옥기 기자

시내버스 친절도 향상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 △운수종사자 교육 운영 강화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차등 지급 등으로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의 친절도 향상을 유도한다.

시는 혁신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구현하는 것과 더불어 도심 곳곳에 주차장을 대거 확충하는 등 시민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공을 들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전주시 주차정책 종합계획(2022~2026)'에 따라 △주차 공간 확충 △신진 주차 시스템 구축 운영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개선 △불법 주·정차 해소 △주차 정책자문단 구성 운영 등 5대 분야 12개 중점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심규문 전주시 대중교통본부장은 "올해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공사의 시작과 공영주차장 확충 등 전주시 대중교통의 획기적인 변화의 한 해가 될 것이다. 대중교통 서비스가 더욱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시민이 존중받는 교통도시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대한행정사 전북자치도행정사대회, 정기총회 개최

회칙공포·마을행정사 제도 도입 등 의결

대한행정사 전북특별자치도행정사대회(회장 이인형)는 25일 11시 전주 중화산동 오리사람에서 '2024 정기총회 및 신년인사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전북행정사회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먼저 이임 임원진에 대한 공로패 수여와 신임 임원 및 운영위원들에 대한 임명장 수여가 있었다.

이어서 '2023년도 주요 경과보고' 및 '2024년도 회칙공포 등 주요현안'을 의결했다.

올해 중 운영방향으로 중앙 행정사회와 전북행정사회의 교류증진

활성화, 마을행정사 제도 도입, 전북행정사회 회원들의 역량강화 개발, 대국민 행정사 업무 홍보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새해 처음 마주한 전북회원들은 화기애애한 가운데 덕담을 주고 받으며 행정사 업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이인형 회장은 "2024년 갑진년의 청룡은 리더십과 자신감을 상징하는 동물이다. 여의주를 물고 승천하는 용과 같이 올해는 전북행정사회 가 용의 기세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 모든 회원분들이 가정에 건강



대한행정사 전북특별자치도행정사대회는 25일 '2024 정기총회 및 신년인사회'를 가졌다.

과 행복이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안전한 설 명절 위한 행정력 집중

4대 분야 12가지 추진과제 설 연휴 종합대책 추진

전주시는 오는 29일부터 2월 12일까지 약 2주간 △시민안전 편의증진 △비상 의료 대응체계 확립 △민생경제 활성화 △종합대책 홍보 등 4대 분야 12가지 추진과제로 된 설 연휴 종합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특히 시는 이번 설 연휴가 지난 추석에 비해 기간은 짧은 대신 환과와 화재 발생 빈도가 많은 겨울철임을 고려해 시민들의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내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먼저 시는 설 연휴 전에는 도로와 공원, 교통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사전 일제 점검을 추진해서 전주를 찾아오는 귀성객과 관광객에게 전주에 대한 쾌적한 이미지를 심어주고, 안심하고 편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설 연휴기간 이후에는 오는 2월 16일까지 혼합폐기물과 음식물 쓰레기 등 명절 연휴기간 다중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어 시는 설 연휴기간에는 시민의 안전과 불편 해소를 위해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재난·청소·교통 등 각 분야별 대책반을 가동하는 등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또, 상수도와의 등 각종 생활민원 대응을 위한 부서별 자체상황실도 운영된다.

일례로 전주시보건소의 경우 설 연휴기간 비상의료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응급진료 상황실뿐만 아니라 비상진료소도 운영하고,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과 감염병 집단 발생 등에 대비해 비상연락체계를 상시 유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설 연휴기간 이후에는 오는 2월 16일까지 혼합폐기물과 음식물 쓰레기 등 명절 연휴기간 다중

집합장소에 배출된 생활쓰레기 적치 지역 일제정비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장보기 행사를 분산 운영하고, 사회복지시설과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2024년 설맞이 이웃사랑 나눔 행사' 등을 통해 훈훈하고 따뜻한 명절 분위기를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종택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2024년 푸른 용의 해인 청룡의 해를 맞아, 전주를 찾는 귀향객과 전주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전주시 2024 설 연휴 통합정보 안내 누리집'을 통해 설 연휴기간 주요 관광시설과 공공운영시설의 개방 여부와 의뢰기관 및 약국 현황 등도 안내할 예정이다. /김옥기 기자

백제왕궁 인접 국도 1호선 선형 개선 촉구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국가식품클러스터 완주산단 산업선 건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 건의

전북지역 시·군의회 의장들이 익산 왕궁리 인접 국도 1호선 선형 개선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국가식품클러스터-완주산단 산업선을 포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전주시의회 이기동 의장)는 25일 익산종합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제280차 월례회에서 이런 내용의 건의안과 회칙 일부개정안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익산 백제왕궁(왕궁리유적) 인접 국도 1호선 선형 개선 건의

안에서 "왕궁리유적은 규모와 성격이 밝혀진 국내 유일 고대 궁궐유적으로 세계유산으로 등재돼 있지만, 국도 1호선으로 인해 동-서로 단절돼 보존과 활용에 어려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도 1호선 일부 구간의 지하화 등 선형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또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완주산단의 물동량 증가에 따른 처리를 위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국가식품클러스터-완주산단 산업선을 반영할 것도 건의했다.

지금도 물동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과 완주 수곡화산단 조성까지 이뤄지면 급격한 수송량 증가를 현재 도로가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의장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도로 중심의 물류체계를 철도수송으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완주~익산~군산~새만금 신항으로 이어지는 환황해권 물류 연계 운송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채택한 2개 건의안을 국도교통부와 문화재청 등 관계 기관에 보내 안전 해결을 촉구할 계획이다. /김옥기 기자



전북지역 시·군의회 의장들이 익산 왕궁리 인접 국도 1호선 선형 개선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국가식품클러스터-완주산단 산업선을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전주시, 스페인 국제관광박람회서 전주 관광 홍보

관광거점도시 전주시가 글로벌 관광 활성화와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해 유럽시장 공략에 나섰다.

시는 현지시간으로 24일부터 28일까지 스페인 국제관광박람회(FITUR)에 참가해 현지 여행업체와 개별 여행객을 대상으로 전주 관광 홍보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베를린 국제관광박람회, 런던 국제관광박람회와 함께 세계 3대 관광박람회로 꼽히는 스페인 국제관광박람회는 세계 131개 국가의 1만여 관광업체와 약 22만 명의 관람객이 참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관광박람회이다. 국내 지자체 중 유일하게 참가한 전



전주시는 24일부터 28일까지 스페인 국제관광박람회(FITUR)에 참가해 전주 관광 홍보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주시는 이번 박람회서 유럽시장 공략을 위해 한국관광 홍보관 내 별도로 마련된 전주 관광 홍보부스를 운영하

며 대한민국 대표 미식 관광지이자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를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현지 인바운드 여행업체와 일반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전주 관광 홍보 및 인접 시·군과 연계한 상품 홍보·상담을 진행하고, 전주 관광 박람회 활용한 굿즈 등 전주를 기념할 수 있는 홍보물품을 배부하는 등 전방위적인 홍보 마케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한국관광공사 및 국내 참가업체와의 간담회에도 참가해 전주시 관광객 인센티브 제도를 홍보하고, KTO(한국관광공사) 협력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등 유럽 관광객 유치를 위해 상호 협력해나갈 예정이다. /김옥기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익자였다.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반하강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들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풍각



내아



전주매일 캠페인